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December 30, 2018

기쁨, 화평,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2018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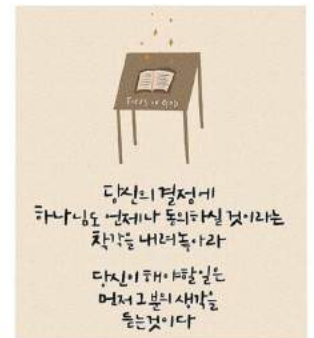
4-52호

니눔의 달
송년 감사 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2:1-5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384장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가 43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최선운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일찬송가 460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은강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2:1-10
소망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들

독상에세이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풀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한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존 프레스턴 / 기도의 영성

전신 무장을 다했다고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할 때에만 그 무장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중에서 가장 악한 본성은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열심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목사, 회복의 교회 -

한 주간의 기도

"한 해 동안 주 안에 버티고 주만 의지하려고 했으나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새 해에는 주를 온전히 인정하고 나를 내려 놓으며,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EM PASTOR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사야 40:29)

교회와사역

2018년 끝자락의 메모

2018년을 돌아 보니 용두사미가 일상화된 뻔뻔한 신앙인이 보입니다. 삶과 교회 사역에서 "내가 너무 많이"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하나님, 또 이렇게 낭비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죠?" 라고 때라도 썬 불 요망입니다. 또한, 2018년의 바다를 함께 헤쳐 온 '섬김의 교회'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감사를 전합니다.

들을 자가 들을 때까지 광야의 외침을 쉬지않는 목사님, 요리 빼고 조리 변명하는 나 때문에 속았어 하셨음에도 인내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해에도 복음의 진리에는 단호하고 품고 사랑하는 데에는 한 없이 유연한 리더, 하나님의 선한 목사로 부족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세요.

신체의 고통을 넘어선 삶의 도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보여주신 정홍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으로 새롭게 동역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드러지도록 늘 애쓰는 찬양팀 모든 멤버 - 구은강, 김진실, 박진성, 유덕하, 유동숙, 최선윤, 홍현근, 그리고 김지수. 그들에게는 늘 믿음의 빛을 집니다. 혹여 음악 전문가에게는 세련됨이 부족하게 들릴지라도 나에게 감동의 멜로디이고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입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그리고 음향효과로 받은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쓰며 계속 전진해 주십시오. '겸손과 감사'의 신앙이 '한 소리'로 울릴 때 찬양자가 먼저 은혜 입음을 우리가 잘 알지요.

목회 협력팀으로 섬겼던 구민, 최내권, 김태성 집사님, 사랑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잘 알기에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쳐야만 했지요.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작다면 제 탓일 겁니다. 그래도 한 배를 뒀으니 과를 나누자고 우겨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건강하고 균형된 2019년 교회 사역을 꿈 꿉시다.

누가 그렇다.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사님을 끌어지지 않고 모시느냐고. 애들도 몇 안되고 재정이 있냐고. 그래서 말했지요. "우리 교회는 교육을 포기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냐고."

반항기의 사춘기 아이들, 쉬지 않고 조절대는 아이들을 사랑 아니면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할까요. 사가 전도사님과 고순제 전도사님의 헌신이 그 모습에 다름 아닙니다.

잡박이는 전구, 흔들리는 선반, 비뚤어진 배너, 나 같은 사람에게는 레이더 망 바깥인 관리 사역의 문제점들을 소리 없이 잠 재우는 보물의 손, 이광호 집사님. 새 해에는 세밀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길. 이광호 집사님이 되실 겁니다.

차분한 신앙 속에 심지 있는 사역의 일꾼으로 애 써 온 오정은 집사님. 때론 예정되지 않은 저의 요청에도 웃음으로 사역의 짐을 같이 덜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소망을 새 해에도 품고 나갑니다.

새 식구였는데 어느 새 오랜 형제, 자매 같은 홍현근, 정임 집사님. 역시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사랑의 깊이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 용기와 담대함으로 사역을 위해 중심으로 나가며 신나는 교회를 만들어요.

섬김의 교회에서는 예배 후 늘 배가 행복합니다. 예배 후 친교는 교회의 또 다른 사역임을 잘 알게 해주는 친교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섬김장 구은강 집사님의 엄마 손 같은 사랑이 더 깊게 전달되는 새 해가 되리라 믿을게요.

재정 사역으로 늘 머리가 복잡하실 재정위원회 섬김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 지나왔네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힘든 사역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겁니다.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 사역의 보석, 유동숙 집사님이 계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주보 사역과 인체/디자인으로 얼마나 풍성했는지. 새 해에도 넘치는 상상력과 세심한 손길로 열매 맺도록 달려가 보죠. 그래도 계속 교회 일로 과롭게 드리는 할 거니 용서하십시오.

명쾌한 성경 해석, 따뜻한 위로, 따듯한 권면, 주일 아침의 '생명의 삶' 묵상 나눔을 쉬지 않고 인도하신 김윤경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으른 참가자였음이 분명한 지도 사모님의 인도를 좀 더 따르도록 애쓰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 벌써 김태성 집사님은 따뜻한 남쪽으로 가셨네요. 허전한 자리를 자꾸 쳐다 보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김태성 집사님, 정줄리 권사님, 일년 반 동안 사역의 energizer였습니다. 초기 '외부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우리의 부족한 사역의 모습도 깨달았죠. 또, "섬김의 교회에서 교회다운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실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분의 따뜻한 사랑과 사역의 열정이 하나님이 보내 실 다른 동역자를 통해 채워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죠?

저는 감사를 느끼고 배우는 한 해였네요. 2019년에는 우리 섬김의 교회 동역자 모두가 사역의 조건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늘 새롭게 변화하기를 이 새해 간구합니다. - 김훈태 집사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1월은 "새롭게 출발하는 달"입니다. "네 영혼이 잘 된 곁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오늘은 송년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도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한 결산의 주간과 새로운 출발의 주간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며,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출발합니다!
- 결산과 예산의 시기입니다. 각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합니다. 그리고 2019년 사역을 계획해주시요.
- 오늘 친교 후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합니다.
12/31(월)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11:00pm)
송년 Oikos 셀모임(10:00 - 11:00pm)
친교 (9:00 - 9:50pm)
저녁 식사(8:00 - 8:50pm)
신년특별 새벽기도(1/2-1/12, 주중 6시 & 토요일 7시)
-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섬김이

	12/23	12/30	1/6	1/13
주일예배기도	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정줄리권사
금요일예배기도	12/28	1/4	1/11	1/18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최선윤집사	구민 집사
주일헌금위원	12/9	12/16	1/6	1/13
	유덕하집사/최선윤집사	구민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1월	
	김훈태집사		정줄리권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 마태복음 2:9-11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들을 살펴 보면 성탄의 참 의미를 재확인하게 된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이시다. 우리가 드릴 황금은 굳건한 믿음, 불과 같은 연단에도 없어지지 않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유향은 중보를 상징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유향은 거룩한 향의 재료였고 소제물 위에 놓였고, 제사장만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를 받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 우리가 드릴 유향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여야 한다. 몰약은 희생을 상징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수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께 우리가 드릴 몰약은 자아와 욕심을 완전히 죽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낮아짐이다. 동방박사들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준비되어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지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 고린도전서 2:1-5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1. 사람의 말과 지혜의 한계를 알았기에

2. 복음 전파에 있어서의 진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기

3.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마지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 고린도전서 2:1-5

고린도 사람들은 말과 지혜를 중시하는 그리스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말로 아무리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전에 말과 지혜로 전도를 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들의 철학적 경향에 따라 복음을 논리적으로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저 새로운 학문이나 종교 정도로 여겼을 뿐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이 실패 직후에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실패는 바울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에서의 진짜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밤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며 누구도 바울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말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말과 지혜로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뒤에 감춰집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를 전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바울이 깨달고 실천한 이 원칙은 단지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전도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